

부처님을 후견인으로 둔 우리, 행복에 겨워 삼시다

김홍신 작가(건국대 석좌교수)

김홍신 작가는 7월 16일 동산불교대학 제3회 명사초청법회에서 '불교의 행복론과 인생사용설명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홍신 작가는 근사하게 사는 인생사용설명서를 소개했다. 그는 "10분 웃으면 10분 부처·예수가 되지만 10분 웃고 그리고 미워하면 악귀·마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웃으며 즐겁게 살 것 △소박하게 먹어 몸을 가볍게 하고 소박하게 생각해 영혼을 편케할 것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나눌 것 △습 취고 생각하고 울고 불고 하며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희망을 갖기△내가 살아 있음은 세상의 수많은 수고 때문임을 알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기 △웃고 즐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며 남을 기쁘게 해 보람있게 살기 등 행복한 삶을 위한 7가지 자세를 소개했다. 아래는 강의 요약문이다.

정리=이상연 기자

세상의 중심은 '나'

나를 가적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나올까.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이 나올까? 사람들은 스스로 권력, 명예, 재물, 인품, 학연, 지연, 가족 등을 남들과 비교하며 사회적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기죽고 열등감에 빠져 괴로워합니다.

세계 67억 인구 중 자신과 똑같은 영혼과 육신이 단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으며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가요. 일단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식사하고 밥을 넘길 때 목을 왜 찢으면서 삼키니까? 알약을 삼킬 때 왜 목을 찢고 삼키니까?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가루약은 왜 그렇게 드십니까? 이것은 먹기 싫다는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습성을 바꿔야 합니다. 용수철과 같이 습성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습성을 느끼게 전천후 조금씩 바꾸시겠습니까? 1000년을 사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면서 느끼게 전천후 조금씩 바꾸려고 합니다. 용수철이 튀는 방향을 조금만 틀어버리면 되듯 인생은 확 바뀌어야 합니다. 더욱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모두 공짜입니다.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내가 되고 선이 자리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명예, 돈, 권력에 끌려 주인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좇는 것이고 원망은 있는 것입니

다. 기쁨은 찾는 것이고 슬픔은 건디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마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것이고 미움은 삭이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속박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울음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수비수하지, 유별하거나 특별하거나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힘겹고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 일도 없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으니 짜증나고, 피곤하고 외롭고 몸도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을 둘러보면 나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일이 나아지리라는 가능성을 갖고 오늘의 고통과 힘겨움, 갈등을 견디고 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행복은 스스로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밖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잠시 기쁨 뿐입니다. 나 자신이 소중하기에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인 듯 최선을 다해 살고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인 듯 행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기면 세상에 즐겁고 기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곧 희망입니다.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수없는 좌절과 고통 갈등이 파리를 틀고 앉아서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곤 합니다. 한 세상을 잘 살았다고 널리 알려진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모두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뇌는 우리의 멘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뇌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미래를 개척해 주며 살아갈 만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명마도 즐기고 좌절과 아픔도 버티며 슬픔과도 어우러져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희망은 좌절 실패 불행 고통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독실한 불자인 김홍신 작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 소설가다. 제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8년 연속 의정평가 1등을 받았다. 1947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논산에서 성장한 김홍신 작가는 건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석좌교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한나라당 홍보위원장, 민주당 대변인, 민족화해협력국민연합 집행위원장, 평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수상내역으로는 제12회 한국소설문학상, 제6회 소설문학작품상, 제1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제4회 통일문화대상, 현대 불교문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인간극장> <갈날 위의 전쟁> <바람 바람 바람> <내륙> <김홍신의 대탈해> <전10권> <인생사용설명서> 등이 있다.

희망은 인간에게 태양과 같은 것이고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희망은 공짜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면 말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인생을 바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살짝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자극을 할 뿐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흔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이 변하고 상대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내 수준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생각대로 존재

하기를 기대하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에 따르기만을 바라면 반드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허물을 충고하고 따스하게 덮어주어야 합니다. 마치 연인을 대하듯 다독이며 사랑해야 합니다. 벼를 즐겁고 재미있게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벼가 필요하다고 할 때 곁에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없이 용서하라

육신의 쓰레기는 버리면서 마음의 쓰레

기는 왜 버리지 못합니까.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암세포 공장으로도 만드는 것이고 잘 버린다면 육신을 앤돌핀 공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용서는 어려웠지만 조건 없이 그냥 관대해지는 영적인 용서입니다. 영적인 용서를 하면 참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의 근원을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눈을 감고 10분만 앉아 있어보면 과거에 집착하는 번뇌와 미래에 사로잡히는 망상을 견어내고 견어내고 연방 머리를 내밀곤 합니다. 쓸모없는 것, 나를 괴롭히는 것, 내 영혼을 갇아 먹는 것은 자꾸 뺏아 버려야 합니다. 꽃밭이나 잔디밭을 곱게 가꾸려면 잡초를 뽑아내야 하듯 우리의 마음 밭을 편안하게 하려면 영혼에 박힌 가시를 아끼 없이 뽑아내야만 합니다.

100년도 못살면서

느리게 천천히 조금씩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인생은 확 바뀌어... 바뀐다

성불하지는 못하더라도 용서하며 사십시오. 용서하고 배풀면 그 순간 보살이 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 그 순간 악귀가 됩니다. 자비는 다른 이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심성이고, 자애는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자애이고, 아픈 이를 조건 없이 보살피는 것은 자비입니다. 바로 자애와 자비를 행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가장 멀리 퍼져나가고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눅 들지 말라

내 인생은 당연히 내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얽매어 살지는 않았습니까.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사람은 멀쩡한데 개는 지치고 맙니다. 사람은 인생에 목적이 있어서 관찮은데 개는 생존을 위해 주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개처럼 살지 주인처럼 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목에 채운 목줄은 지금이 자리에서 잘라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남에게 끌려서 사십니까.

욕구가 커질수록 만족은 줄어들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비교법을 교육 방법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비교법은 교육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비교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열등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밥을 많이 먹고도 날씬해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좋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모 손에서 자랐고, 예수는 의붓 아버지 아래서 자랐습니다. 공자는 평생 떠돌이로 살았고 사마천은 생식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니다. 이들은 이런 열등감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세상에 이바지했습니다.

과거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게 뭐 어쨌다고' 라고 생각하십시오.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해 버리면 행복하지 않지만, 이를 딛고 이겨낸다면 근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후견인인 부처님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저는 <인간시장>을 560만부 판매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국회에 8년 동안 있으면서 법 개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명예도 다 얻어 봤지만 다 해놓고 보니 허망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니다. 늘 초조했습니다. 기름칠 해놓은 벽을 발톱으로라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시 법륜 스님에게서 물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잠업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리는데 힘을 써 줄 것을 제안 받았습니니다. 그 후로 나는 12시간 이상 책상에서 매일 20매 이상 글을 썼습니다. 3년을 두문불출하면서 1만 2000장의 글을 손으로 써 <대발해> 10권을 완성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갖가지 병도 다 앓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일을 하고 나서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만이 행복도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1회용 휴지를 한 번 쓰고 다시 씻어 재활용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도 일회용 휴지처럼 한 번 쓰고 갑니다. 근사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남을 기쁘게 하며 세상에 보탬이 되고 행복에 겨워야 합니다. 단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인생사용설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주눅 들어 살지 마십시오. 멋에 겨워 사셔야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 궁리를 하십시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니다.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정통사주 자평 명리학의 신화....!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일어나라
정통 사주명리학의 핵심적인 용신과 격국의 패러다임을 찾았다.

사주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출생년, 월, 일, 시 사주팔자를 음양 오행인 자연이치로 분석하여 정해진 명(命)이라고 하는 운명적 요소와 성품적 요소를 분석하여 활용적 가치를 찾자는 학문이다.

음양 오행철학은 역(易)의 신비로써 이치를 규명하므로 신비롭게 곁, 흥을 발휘 수 있어야 한다.

천기누설을 잘하면 모두가 복을 받게 되며 잘못하면 재앙을 부르게 된다.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저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독자의 별칭 자미두수 비법 4x6배판/高山 영창용 저/양장본/4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저/4x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2 권 680쪽/각 권 5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경 저/26,000원

욕임이 보인다 新 사주학 핵심비결 功念 저/4x6배판/양장본/70,000원 송월 스님 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건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임,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 (風水總論)

오묘불가사의한 현공풍수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한책

현공풍수 지리학
양균승 삼합수법
황제택경 개론

산에 올라 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지사는 참다운 지사가 아니다.形氣를 보고 바로 쫓아 올라가 理氣로 증명하는 한국 풍수학계의 최고봉 장태상 교수의 역작!!

불교TV에서 풍수 강의 중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泰相 책값: 37,000원

구입문의 : 도서출판 정산(正山) / (주)안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안메소프트
온라인 구매 : www.jsbook.co.kr 에서 검색 후 구매 가능